간다라서 만난 붓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오늘이 한국을 떠나 파키스탄에 온 지 열흘째다. 꼭 한번은 오고픈 곳이었지만, 이제야 연이 닿았다. 이 간다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B.C 327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북부를 다녀갔고, 이후 300여 년이 지나 등장한 문화가 간다라 미술과 〈밀린다왕문경〉이다. 이어서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이 포교사를 통해 간다라까지 불교를 전했다. 또 한 가지는 쿠샨왕국의 카니슈카 대왕이 초기불교 학파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어느 강의를 하든 그 강의 주제와 관련해 불교역사를 첫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간다라는 불상과 더불어 잠깐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파키스탄의 간다라[페샤와르 일대]와 여러 지역을 순례하면서 불교역사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갖게 됐다. 한 마디로 이번 간다라 불적 순례를 통해 불교학과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해 입체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각(正覺)이 단초이지만, 2000여 년 간 수많은 논자들의 논리가 덧붙여져 지금의 불교가 존립한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행의 종교'를 넘어 대승불교의 '신앙의 종교'가 형성되었기에 불교가 세계적인 3대 종교가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불교학의 지평이 넓어지고 대승불교의 신앙적인 측면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던 곳이 간다라 지역의 불교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간다라는 외세 침입이 잦은 곳이라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어우러져 새로운 불교를 꽃피웠다는 점이다.

첫째, 탑(Sutpa) 숭배이다. 불멸후 사리는 승려들이 아닌 재가자들이 모셨다. 이후 아쇼카 대왕

승가 사라져 유적 남은 파키스탄
출가자 부족 韓불교도 고찰해야
순례하며 우리 불교 미래 고민해

을 기점으로 부처님 사리탑이 인도 전역에 수백 수천 곳에 모셔지면서 부파불교 교단의 승려들도 점차 탑을 모시기 시작했다. 한편 탑 숭배를 기점으로 대승불교는 발전을 거듭한다. 간다라 유적을 통해 만나는 탑 숭배는 곧 불교의 신앙적인 면모로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간다라불교의 최극점은 불상의 등장이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동양의 불교가 결합되면서 불상과 보살상이 등장했다. 곧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도인들에게 위대한 성자를 형상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셋째, 초기불교와 대승불교가 동시에 발전되었다고 본다. B.C. 1세기 전후 대승불교가 등장했어도 부파불교에 비해 대승불교는 열세했고, 카니슈카 대왕이 협존자를 상수로 500명의 승려가 카슈미르지방에서 결집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하여튼 간다라에서 발전한 불교는 대승사상이 돋보이는데, 보살상에는 미륵과 관음보살이 두드러진다.

넷째, 간다라불교에서 느낀 점은 수백여 사찰이 있었고, 어느 곳에는 수백여 명의 스님들이 기도하고 수행했다는 점이다. 곧 이 승려들에게 공양 올리는 신자들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그 당시 간다라 불교 면모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한 마디로 간다라불교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더 나아가 불교 최고의 르네상스를 구가했다고 본다. 그런데 필자가 하고픈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불교는 불법승 3보의 종교이다. 불보와 진리는 최상승 존재이지만, 승보가 없이는 불보와 법보는 존재할 수 없다. 솔직히 파키스탄 불적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번성했던 불교가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나? 필자가 간다라를 순례하면서 마음자리 행간 행간에 우리나라 불교를 염려했다. 수백년 후, 각 교구본사에 예불하는 승려가 있을까? 지금 현재 출가자 부족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불교가 간다라 불교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제행이 무상이지만, 이 진리는 맞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강구책이 없을까?

폭염의 책임론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더워도 너무 더웠다. 입추를 보내고 처서가 지났으나 더위는 꺾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젠가 더위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올여름 폭염은 잊힐 것이다. 내년 여름이 올 때까지. 올해 열대야가 최대 일수를 갈아치웠다는 뉴스는 모두가 이미 체감하고 있기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다들 더워서 힘들다는 소리는 입에 달고 지냈지만 폭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에 '지구 온난화'는 끝나고 '지구 가열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지구 기온이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 펄펄 끓는다는 이 선언의 위중함이 좀체 대중들에게 가 닿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후란 공기, 물, 나무, 흙, 인간 활동, 대기의 흐름, 해류, 빙하 등의 물리적·화학적·역학적인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저 열대, 온대로 구분 짓는 그런 피상적인 기후가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기후라는 얘기다. 우리 조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문명을 꽃피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관계가 안정적이었던 덕분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다. 이 관계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인드라망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속도다.

기온 상승의 원인이 온실가스를 과다배출한 때문인데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대체 어디서 이토록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걸까? 날마다 먹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자.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이며 기르는 가축으로는 그 많은 식당에 고기를 공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을 온갖 마트며 식품매장에 꽉꽉 채울 수는 더더욱 없다. 축사에다 수많은 가축을 몰아넣고 길러야 하며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 가축들은 정해진 시점에 고기로 상품이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길러지고 도축되고 유통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사료로 쓰일 콩이며 옥수수를 재배하려 아마존 열대우림은 무참히 사라지고 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이고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지만 고기 한점을 지구의 허파와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대부분 식당에는 고기 메뉴가 점령하다시피 했다. 비빔밥에도 김치찌개에도 심지어 된장국에까지. 어쩌다 이토록 고기가 넘쳐나게 되었을까?

OECD 36개 나라에서 현재 육류 소비를 절반만 줄여도 기후 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고기 한 점과 올여름 폭염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이제 폭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연해질 것이다.

社 說

9·28 불교도대법회에 거는 기대

2024 불교도 대법회 집행위원회가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법회 봉행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스님과 신도 3만 명이 동참하는 이날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의식, 승보공양,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 전통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규범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수계의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수지하는 자리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등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진우 스님의 '선명상 선포'를 주목할만 하다. 대회에서는 진우 스님이 '5분 명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화문광장은 3만여 불자들이 동참한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이 연출될 전망이다. 5분간의 고요 속에 선명상이 이어진 후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 합송으로 국제선명상 대회는 대미를 장식한다. 조계종은 이후 전 국민에게 '하루 5분 선명상'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은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계층간 갈등, 무한경쟁,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 극복을 위해 전

9월 28일 광화문, 명상센터 탈바꿈…108개 선명상 프로그램 발표
진우 스님 '5분 선명상' 선포… 3만여 대중 5분 선명상 체험 장관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승보공양법회에서는 승보공양 의식을 오계의 덕목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경의식을 시연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4시부터 이뤄지는 '국제선명상대회'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한국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계종이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되는 점이다.

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혁명을 이끌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서점가에는 불교와 명상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8월 27일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다. 특히 7월에는 2030 세대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9%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교 전법·포교는 적기를 맞았다. 이번 대회가 불교와 선명상 대중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9월 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9월 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9월 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